2022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신입조합원교육

■ 일시 / 장소

1차 2022년 3월 26일(토) 10시~13시 / 온라인(ZOOM) 교육

2차 2022년 4월 2일(토) 10시~13시 / 온라인(ZOOM) 교육

■ 주최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진·행·순·서

시간	내용	강사
사전교육	공동육아 가치와 철학(영상)	정병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사장)
10:00~10:30	(1강) '나 너 우리의 공동육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소개	전주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10:30~11:10	(2강)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1-2022조합운영진 (정유진_작은나무숲어린이집, 정지현_즐거운산들어린이집, 홍한솔_콩세알어린이집)
11:10~11:30	휴식	
11:15~12:20	(3강) 공동육아 교육과정 들여다보기	성미루 현장교육지원전문가

참고자료 미래 사회와 공동육아

정 병 호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사장,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우리가 살아갈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난 시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근본부터 변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 산업 국가와 현대적인 삶의 양식을 따라잡느라고 베끼고 학습하기만 했던 지난 시대와는 달리 지금부터 살아갈 미래는 모델이 없다. 우리가 앞서 겪으며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접근방법이 있다. 고령화와 생애적 접근, 제도화와 생태적 접근, 세계화와 다문화적 접근, 이 세 가지 접근방법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적 과제이다. 현대성에 지친, 현대성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보편적 문제의식이자 해법이기도 하다. 공동육아운동은 초기부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실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모색을 하였다.

1) 고령화와 생애적 접근

고령화는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의 보편 과제이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성장과 발달의 토대가 되는 아동기를 연상했다. 그러나 인생의 각 시기, 즉 생애주기가 계속 이동하고 확산하고 있으며, 그 과정, 즉 생애과정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삶을 준비하고, 살고, 누리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키우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백 살에서 백스무 살까지도 사는 그 기나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 사회의 노년에 대한 연구는 인간 두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연구까지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인간 두뇌, 나이, 삶에 대한 이전의 상식을 뒤집고 있는 상황이다. 두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신체운동과 뇌기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책 한 권 외우는 것보다 공 한 번 차는 게 두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세 살 때 운동 능력이 있는 아이가 세 살 때 어휘력이 있는 아이보다 열여덟 살 때 지능이 더 높다”는 추적 연구 결과도 소개되었다. 신체활동이 활발하고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더욱 활기차게 확대된 중년기와 노년기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 특히 노년기와 중년기의 두뇌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놀라 바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한다.

공동육아의 아이들이 매일 마음껏 밖에서 뛰놀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누리도록 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 그동안 팔다리가 굵어진 공동육아의 아이들을 보고 뿌듯해했는데, 두뇌도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전 생애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한 것이다. 공동육아에서 나들이와 다양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일상을 구성하게 된 것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만, 최근의 전 생애를 통한 두뇌의 성장과 활성화에 대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우리의 직관은 옳았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2) 제도화와 생태적 접근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고속 현대화의 성공사례이자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현대적 가치의 실천사례이기도 하다. 일과 놀이와 노동, 그리고 인생까지 효율적으로 꽉 짜인 구조를 만들고자 가장 참을성 없이 서두르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을 전체 아동에게 확대시키고, 경쟁적 교육프로그램을 더 낮은 연령층의 아동들의 내면까지 심화시키는 과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본주의적인 기업 체계의 모델이 학교를 넘어서서 더 낮은 연령층의 교육기관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회사원의 가치와 효율성을 내면화시키는 학교교육이 사실상 아동기를 침식시키고, 상실시키고 있다. 현대의 아동들이 일상적인 삶의 흐름으로부터 유리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의미 있고 적절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작업(일)과 놀이의 기회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매일 어린이집밖으로 나가는 생활중심 통합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나들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곳이다.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 년에 두어 차례 ‘소풍’을 가면서 주로 실내에서 ‘수업’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상가건물의 학원과 놀이방들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방안에 가두고 공부시키는 것이 안전한 보호라고 여길 때였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분리된 현대의 제도화된 환경 속에서 아동들이 겪는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자 가능성으로서 ‘생활’과 ‘경험’을 강조한 것이다.

보육 현장 일은 교사의 일,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일일 ‘뿐’ 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가 월차를 내서라도 어린이집 일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아마(아빠엄마)’ 규정도 만들었다. ‘아마’로 온 아버지들이 기저귀 갈고, 설거지하고, 낮잠 재우고, 아이들과 노는 하루의 일상을 경험하고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의 지배 가치, 지배 이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성이니 합리니 관료적 효율성이니 하는 현재적 지배 가치를 좀 더 자신 있게 극복하여야 한다. 분리가 주는 효율을 너무 숭상하지 말고 통합의 어려움을 겪어 내는 것이 긴요하다. 개별화된 발달에서 인간관계의 회복이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발달과 진보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생태와 순환을 찾는 여유 있는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고자 하였다.

3) 세계화와 다문화적 접근

한국은 급진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다.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유학, 이민 등 외부로 향하는 세계화와 아울러 한국사회 내부도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를 배경으로 한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자가 들어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중국 조선족을 비롯해서, 러시아, 사할린 귀환동포와 탈북이주민 등의 이주로 '한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도 시작되고 있다. 지금 자라나는 남한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2천 5백만 북한 동포들과 직접 교류하고, 나란히 일하고,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선진사회만

바라보던 세계화 의식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다문화적 관점과 감수성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운동은 1996년 북한 어린이 구호활동을 위한 새로운 단체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창립 작업에 거의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 기근 상황 때문에 죽어 가고 있는 북쪽 아이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돌보는 남쪽 아이들과 만나서 함께 살아 갈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와 함께 지난 18년간 대북 구호사업에 참여해 오면서, 남과 북의 통일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얼마나 오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게 되었다. 북쪽에도 경쟁적인 현대적 가치와 이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미래를 모색하고 꿈꾸고 있는 바로 우리가 손잡아야 할 그런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남과 북의 어린이를 비롯해서 지역, 계층, 성별, 장애 등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고 자유롭게 함께 하는 그런 폭 넓은 '공동'을 모색해 온 과정이 공동육아의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지역공동체 학교 등 다양한 공동체적 교육현장의 뿌리가 되었다.

'교육'에서 '생활'로, '계몽'에서 '참여'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하는 주제로 공동육아의 실천은 진화해 왔다. 사실 '우리'는 '울타리'와 비슷한 말로 '울타리'를 열어 놓으면, 잘 될 때는 모이고 안 될 때는 먼저 빠져 나가서 관리가 어려운 일이다. 그 '우리'를 어떻게 적절히 유지하고, 확장하고, 다양한 '우리'들을 폭 넓게 확산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도전적인 과제이다. 우리 아이부터 우리 노년까지, 공동육아에서 공동체교육까지, 그리고 생애과정 전체를 공동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동육아가 지금까지 이 시대의 문제를 앞서서 감지하고, 앞장서서 실천하여 왔듯이, 이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좀 더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저소득층 유아교육으로 출발하여 지난 36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한 공동육아 운동은 이제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함께 크는 우리 아이"는 바로 20년 전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우리어린이집을 만들며 펴낸 책 제목이다. 아이들의 주체성을 더 잘 인식하고 받아들이자고 '크는'이라고 했다. 흔히 어른들은 자기 아이를 '기른다'거나 '키운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서로 "함께"하며, 스스로 "크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해도 온 지구의 생태적 환경 구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고리의 핵발전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잘못되어도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한꺼번에 파괴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시대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도 우리 아이들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북관계가 잘못돼서 포탄과 미사일이 오고가면, 그동안 우리 민족이 이 땅위에 쌓아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 다문화 이해와 평화공존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전쟁과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육아의 과제다. 자본과 상업주의 문화가 주도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스스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긴요하다. 방정환, 김기전, 마해송, 윤석중 선생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초기 어린이 운동, 일제하 어린이 운동의 목표가 지긋지긋한 가난과 결핍 속에서 제국주의적인 억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공동육아 운동의 우선 과제는 과도하게 제도화된 상황 속에서 경쟁으로 내

몰려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침식되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망가진 몸과 마음을 '재활'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1강 너, 나, 우리의 공동육아

공동육아와 함께 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전주리(산아래)

순 서



공동육아
철학과 현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역사
회원현황
역할(교육 연구 정책 대외 현장지원)

나와 공동육아
일
관계(공동체)
협동



우리 시대...

현대인은

마을과 고향이 없어진 시대 - 신자유주의 개인화, 성장 발전의 한계, 디플레이션, 불안
불안 - 성적, 건강, 위생, 성공, 안전

도시는

비슷한 주거환경과 경제수준
획일화-다양성이 부족하니 은근한 따돌림을 품위 유지를 위한,
소탈하고 솔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 우아한 거짓말

부모는

가족이 좁아진 사회 - 고립육아
양육자의 온전한 책임 = 온전한 권리, 아이는 도망갈 곳 숨을 곳이 없다.
사교육으로 큰 세대 엄마가 되다 - 불안과 강박, 삶을 책으로 배우다. - 캐빈에 대하여

아이는 다수의 타자에 둘러싸여 필연적으로 다양한 타자의 욕망은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로 아버지의 존재감까지 희박해지는 요즘,
아이는 가장 가까운 양육자인 어머니의 욕망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 철부지 사회



우리 아이들은...

경쟁의 과도화. 성적에의 집착. 관계와 놀이의 현저한 부족.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는 시대. 어른보다 더 일하는 아이들
태어난 이후 계속 하락을 경험해야 하는 아이들 - '하류지향'
절망을 내재화한 아이들, 이룰 일도 할 일도 없다. - '표백'
소비에 취한 시대에 무대에 서 있는 듯 자아감이 높지만 자립이 어려운 세대.

공동육아

다른 사람과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수평관계를 맺을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미움받을 용기

마을 만들기와 협동조합 ..현대인의 소속을 주다
특별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닌 옛 마을처럼 이러저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도시 안에서 내 고향은 아니지만 내 아이의 고향을 꿈꾼다.

일하는 나, 소통하는 나, 공적인 나와 만나 온전한 나를 찾는 길
운영진- 자원활동인지 주업인지. 즐겁게 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일이 되게 하기 - 누가 운영진이라도 30%의 반대는 있다

공동육아 교육과정

"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특징



공동육아의 교육목적

공동체의 생활문화와 놀이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자기존중 및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탐구심에 기초한 문제해결능력을, 예술경험과 자유로운 표현능력을, 생태적 감수성을 꽃피웁니다.

공동육아 철학의 모습

우선순위-이 시기 아이들에게 무엇이 먼저인가

권위보다 평등
경쟁보다 협동
돈 성적이 아닌 존재 그 자체
안전보다 도전
개입보다 관찰
통제보다 자율
프로그램보다 일상의 자연스러움
실내 안정성보다 아이다운 역동성
보호보다 경험
학습보다 놀이와 관계

.
.
.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오느라 애쓰는 게 짠해서
고치 끄트머리를 잘라주었더니
몸통은 빠져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라

공동육아-현재

역사가 생긴 협동조합
양육자참여 / 교사협력 / 수평한 소통 마을확장 /
민주시민 / 사회적육아

앞선 세상을 보는 시선
친환경 / 생태 / 세시 / 놀이 / 이야기 / 나들이 / 기록

만들면서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배움이 일어난다.

어디에도 없는 낮은 자세의 아동권
평어 별명

'살면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의 대부분은
공동육아에서 배웠다'

공동육아-현재 참여 /기후 /마을의 키워드로 읽기

우리의 참여는:
수평한 소통을 하는 조직의 참여
협동할 줄 아는 참여
당사자의 참여
개인의 성장이 일어나는 참여

아동 중심의 참여권
양육자의 참여보육 ->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루어 이해당사자로서 협동하다
교사협동

국가 주도 돌봄의 획일화 -> 사회적협동조합을이루어 이해당사자로서 협동한다
민간의 공공성 당사자성, 비영리보육법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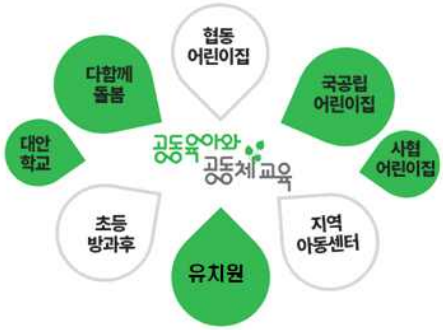
* 재난 이후 도드라진 기후 위기: 미래 아이들의 일상.
  공동육아 기후행동 생태활동은 무엇인가 논의하고 재발견하여 새로운 이름 짓기
* 공동육아 마을로 확산-미래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할 삶의 조건,
  새로 이름 지어 정리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 참여(협동), 기후(생태), 마을(지역) 키워드 중심의 돌봄을 잇는 단체들과의 연구 협력구조를 강화하여
  공동육아가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0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연혁
어린이걱정모임 해송보육학교 1978년
난곡 해송유아원 1980년
창신동 해송아기둥지 1984년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모임 1990년
공동육아 연구회 1992년
공동육아 연구원 1996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01년~


0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연혁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탄생 1994년
공동육아 초등방과후 '도토리 방과후' 설립 1999년
영유아보육법 상 부모협동어린이집 유형화 2005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사회적협동조합 논의 2012년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작 (현 49곳) 2014년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창립 2019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까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 현황

회원 유형



회원 규모

2700명의 아이들		3500여명의 부모들	450여명의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63곳	국공립 어린이집 8곳	초등방과후 19곳	지역공동체 학교 9곳



0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주요 사업

공동육아교육연구원

공동육아 어린이운동 확산
▶어린이 운동 기금

회원 연대 활동
▶법인 총회 (매년 3월)
▶교사회
(지역교사회, 교사대표자회의)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
▶지역공동체학교네트워크
▶공동육아 한마당(격년)
▶공동육아 교사대회

교육센터
▶교사 교육
(교사자격과정/재교육과정)
▶부모 교육
▶시민 교육

연구소
▶공동육아 포럼

현장 지원

컨설팅사업

홍보·출판
▶회 보

정책 제안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부설, 위탁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현재















보육의 공공성확장을 위한 정책 파트너



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에놀잉 작업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심의완영 안내서 발간)
협동어린이집 활성화 정책,
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 협력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춘천, 성남 등

서울시 육아공동체사업을 통한 꿈맛이공동육아의 전국 확산
놀봄, 복지,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협력 모델 발굴과
교육지원, 협력 모델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경기 성남 확성 지역 : 2017-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 춘천 지역 : 사회적협동조합 부모교육자로 연재
교사그룹 교육 컨설팅



사회적경제영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지원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의 정책, 조직적 협력을 기대
*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시민사회 영역
시민단체 연대

보육,돌봄, 핀다, 노동,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진보적 담론에 협력
* 보육대하기인권
* 서울시 놀이권보장시민연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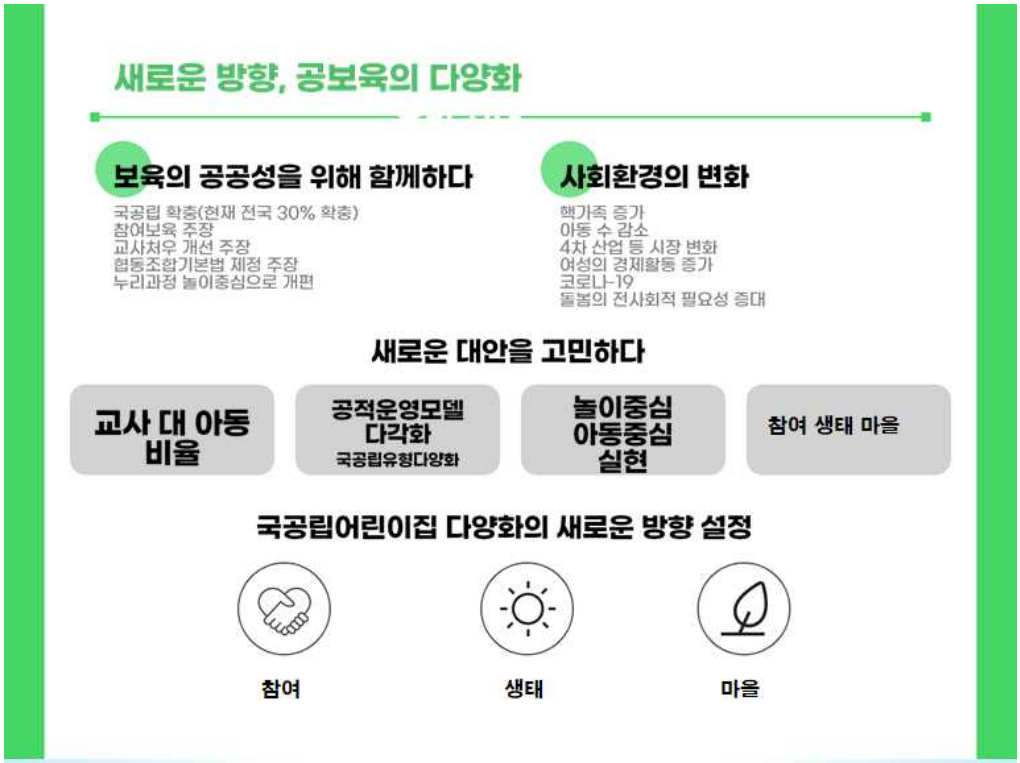
연구정책 영역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재단

유지원, 초등방과후 정책 등
연구정책사업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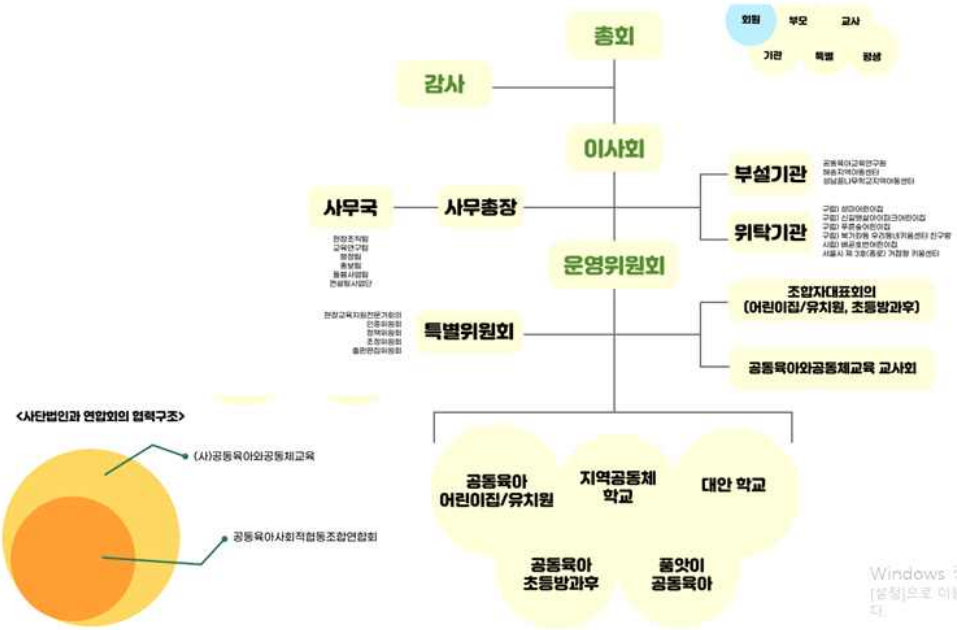
회원단체
공동육아 네트워크 내부 연대

공동육아협동어린이집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새로운 방향, 공보육의 다양화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함께하다
국공립 확충(현재 전국 30% 확충)
참여보육 주장
교사처우 개선 주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주장
누리과정 놀이중심으로 개편
사회환경의 변화
핵가족 증가
아동 수 감소
4차 산업 등 시장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코로나-19
돌봄의 전사회적 필요성 증대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공적운영모델 다각화
국공립유형다양화
놀이중심 아동중심 실현
참여 생태 마을
국공립어린이집 다양화의 새로운 방향 설정
참여
생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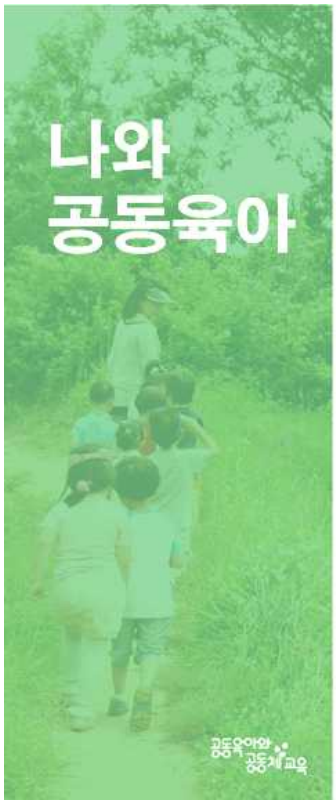

후원하기
공동육아 활동 후원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교육사업, 정책사업, 연구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후원해 주세요.
부모회비 후원
교사회비 후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일시 후원
내 아이를 위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세상이 나아지기 위한 후원
공동육아 철학에 후원하고
활동에 후원하고
내 아이의 미래에 후원한다.
졸업 이후에도 쭈욱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조직도



공동육아 교사 성장체계





일하며 관계하며..

일과 관계

공적인 나- 모든 의견 중 공식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일과 관계와 아이가 함께인 곳. 이사장이었다가 조합원이었다
성장으로 돌아오게 일한다. 즐겁게 일한다

수평한관계

낯선 것과 만나야 소통이다.
낯선 것만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모든 것과 수도 없이 타협하고 화합하자.
우리 일은 외교술이고 정치술이다.'- 프란치스코

개인주의

소비자성개인주의
이미 우리 모두의 안에 들어왔다
안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실이 하나이던 세상은 지나갔다.

-우리는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 자유로운 개인이 가능하다 믿는다



일하며 관계하며..

운영진

이렇게 심한 자원활동은 없다 그에 맞는 예우필요
누가 대표라도 30%의 반대는 있다
차서를 지키는 소통-제안하는 소통
심각한 문제일수록 소통은 공식 비공식 체계를 타고 빠르게 사실분리부터

협동

이해당사자인 교사와 부모가 함께 협동하는 곳,
협동의 힘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해가 얽혀 어려워진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협동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무엇을 협동할 것인가-자본 노동 생각

모든 아이

우리는 아이를 잘키우기위해협력하기위한집단
우리아이는모두의아이-
아이로 인한 것은개별책임이아니라모두가분담한다
모든아이는우리아이다
우리는 사교육을 지양하듯 아이들 다툼의 가피해자 나누기를 지양합니다. 마음껏 놀면 다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나가며... 당부하며...

꼭 졸업하자

졸업 때가 되면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 시간과 의식.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

희노애락이 있는 곳. 사람은 다양하다. 나도 다양하다. 옳은 것은 없다. 결국엔 내 안에 그들 있다
자신을 만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최선과 최악을 만날 것이다.

** 법인 홈페이지 참고 링크 https://www.gongdong.or.kr

2강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유진(핑크) 2022년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유치원 대표자회의 의장
수지작은나무숲공동육아조합/작은나무숲어린이집 이사장
정지현(보리) 2022년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유치원 대표자회의 부의장
산들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즐거운산들어린이집 이사장
홍한솔(노랑) 2021년 서대문부모협동조합/콩세알어린이집 교육이사

핑크

1. 어떤 신입이었고 지금은 어떤 조합원인가?(자기소개)

적극적인 신입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신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저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면 충분했다. 당장 이사진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하나 없어 도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나 하나 까다로우면 그 또한 일을 하나 만드는 것. 따라서 쉬운 사람 편한 사람이고자 했다. 어떤 얘기도 어떤 일도 어떤 제안도 어떤 참여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이 된다면 터전에 보탬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부터 편하게 말하고 행동했다. 거절의 두려움은 버리고 다가갔다. 먼저 마음을 열었다. 걱정은 없었다. 육아 앞에서 계급장은 다 필요 없으니까. 알고 보면 비슷한 구렁텅이에 있으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

아, 단박에 파악한게 있다. 여기선 얄팍하게 굴어봤자 라는거.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랬던것 처럼 말이다. 터전이 내 새 부서, 새 팀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성공의 핵심은 팀웍이다. 진심으로 어울리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한편, 아이가 얄팍한 수를 쓰며 버티는 사회인으로 자라기를 꿈꾸는가. 아니라면 나부터 지금 여기서 아니어야 한다. 내가 마음으로 터전을 만나야 아이도 더 큰 마음으로 터전을 품게 될 것이다. '나는 좀 빠져있어도 애는 잘 다녀' 는 틀린 말일 수 있다.

2. 공동육아 조합원 생활에서 실패담이 있다면? 그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본 것이 실패 경험이다. 소통하기 전에 겁을 먹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생각을 추측하는 그 자체가 일단 불가능 무의미한 일(삽질)인건데, 하필 공동육아 다녀서 사람들 많으니까 (일반 유치원 학부모라면 겪지 않을 일을)겪는 일인 것 같아서 회의감이 들었다. 하지만 늪에 빠진 내 자신을 알아차린 즉시 용기내서 고민 상담을 했다. 잘 들어주는 언니 같은 분께 똑똑~ '사람들이 저에대해 00할까 자신이 없어요... '로 시작.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거다.

3. 코로나 시대에 각 현장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시대에 치이거나 시대를 극복하고 있다. 선배도 사람인지라 성격에 따라 낯을 가리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꼰대 소리를 듣곤 한다. 나도 곧 선배가 될 터인데 어떤 적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진심으로 하되 자신의 마음 낼 수 있는 만큼 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우리끼리 내 신입 동기들끼리 자주 쓰던 말이었다. 남보다 내가 덜 해보이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고 심지어 남이 나보다 덜 해보이더라도 괘씸하지 않게. 그저 자기 마음 내는 거기서부터 하면 그뿐이다. 그러면 다 똑같이 하는 것 인거다. 달리기를 하는데 손을 잡고 뛰는 것과 같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함께 간다. 뒤쳐진다고 해서 손 놓지 않고 앞서간다고 해서 혼자 가버리지 않고 같이 가는 모습 처럼 말이다. 공동육아는 함께이면 그만이지 성공과 실패는 없다. '일을 프로처럼 해내야 한다고 생각 않아도 돼~~ ' '일 못해도 돼 괜찮아~~'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함께가 공동육아의 완성이다.

4. 공동육아 진짜 후회하지 않는가?

안한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공동육아가 아닌 삶을 살아봤더니 너무 텅 빈 일상이었다. 또한 아이의 삶에 가족이 이렇게 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때는 아마 없을 것이다. 엄마아빠가 터전에 오면 아이들은 날개달린 듯 더 행복하게 논다. 두 세 집만 모여도 아이들은 잔칫날인것 처럼 신나한다.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공동육아 시절이 참 소중하다.

* 추가 질문 : 신입이었을때의 특이한 경험은?
(마냥 공평하지 않았지만 1/n이 아니어도 좋았던 일 괜찮았던 경험.)

밥 얻어먹었던 경험. 특히 집밥을 얻어먹을 때는 내 밥값을 1/n 으로 내지도 못하는데 그냥 괜찮았다. 처음에는 너무 죄송했는데 주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자체가 밥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함께를 함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된다. 한 번은 잘 차려주시려는 마음 감사하고 잘 알겠어서 우리 짜장라면 끓여먹어요 한 적도 있다. 무얼 먹는가 보다 같이 먹는게 중요하니까.

보리
1. 어떤 신입이었고 지금은 어떤 조합원인가?(자기소개)

서울 광진구 즐거운산들의 3년차 조합원, 올해 6살이 된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가족은 20년도에 코로나와 함께 조합 생활을 시작했고, 그래서 여태 평일아마(일일교사)조차 해본 적 없는 공알못(공동육아를 알지 못하는)임에도 올해는 얼떨결에 이사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터전에 들어온 첫 해에는 대부분의 아마들과 마찬가지로 터전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조용히 살펴보던 아주 평범한 신입이었고, 코로나로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자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조합원들과 데면데면한 사이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온 많은분들처럼 저 역시 소위 공동육아라는 것의 경험치가 미약합니다. 첫 해에는 공동육아의 문을 두드리면서 가졌던 여러 기대들이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선배들은 경험했다는 그 좋은 것들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싶어 속상해하고 시대를 탓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의 공동육아에서는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또 시선을 돌려

같은 시대의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보면 코로나 시국에 공동육아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코로나 시국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드니 조합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하던 줌 회의도 이젠 새벽까지 줌으로 뒷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내공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의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코로나 시대에 공동육아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더디게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다보니 어느샌가 공동체라는 유대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더라구요. 올해도 모르는게 태반인 채로 운영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덕분에 선배들에게 전화로 들이대고 물어보면서 배워가는 중이라 거기에서 새롭게 관계가 쌓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 공동육아 조합원 생활에서 실패담이 있다면? 그 이유는?

실패라고 했을 때 막연히 떠오르는 것은 함께 들어와서 가깝게 지냈던 조합가구가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탈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기억이에요. 첫 해라 아직 서로가 어색한 와중에도 공동육아에 대한 지향점이 비슷해서 의지도 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던 가구였는데 그 가구가 조합 내에서 불편함을 겪고 탈퇴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마음이 많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물론 탈퇴가 곧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가구는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며 무척 잘 지내고 있고 가끔 연락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공동육아가 육아의 정답도 아니고 무수한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한다고 그 가구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 선택했던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근데 조합생활을 해보니 생각보다 탈퇴하는 조합원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 혹은 내가 탈퇴를 고민하는 일들이 꽤 여러 번 찾아 오더라구요. 하지만 흔들리는 가구들을 보거나 혹은 내 자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공동육아를 선택했고, 이것을 통해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 지금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 얻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한 것 외에는 없다면, 조합 생활은 그저 참고 견디며 희생하는 시간이 되버리겠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조합 생활이고 또 실패한 조합생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물론 나를 위한 공동육아여야 성공한 조합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육아는 결국 부모도 아이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3. 코로나 시대에 각 현장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시대에 치이거나 시대를 극복하고 있다. 선배도 사람인지라 성격에 따라 낯을 가리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꼰대 소리를 듣곤 한다. 나도 곧 선배가 될 터인데 어떤 적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처음 이 조직에 들어오고 든 생각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육아가 지금까지 오랜시간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비효율적인 운영방식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운영진과 새로운 조합원들의 구성으로 새롭게 운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등 다소 헐거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상황이나 위기가 왔을 때 정해진 답이 없어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연함이 역설적으로 이 조직을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육아는 매번 새로운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매년 새롭게 운영되죠. 그래서 과거의 공동육아는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정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배들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인거죠. 운영진을 하는 동안에는 조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끝나면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는 후배 조합원들을 격려해주는 든든한 선배 조합원이 되면 좋을거 같아요. 설령 현 운영진의 결정이 좀 아쉬울지라도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해주는 것은 지금의 운영진일테니,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선배 조합원이 많은 곳일수록 안정적으로 운영되더라구요. 정해진 답은 어떤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조합생활을 하다보면 개인도 조합도 꼰대가 되지 않고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 공동육아 진짜 후회하지 않는가?

아이의 성장을 볼 때마다 공동육아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으로 지내다보면 후회까진 아니어도 힘들거나 지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운영진을 하는 동안은 조합을 위해 해야하는 일, 마음 내야 하는 일이 많아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적인 일을 함께 하다보니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무척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일의 어려움을 주는 '관계'가 때로는 일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조합일은 관계와 소통으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도도 크지만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크지요. 요즘 저희 가족은 각자 터전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 저는 저의 필요(업무)와 즐거움을 위해 그렇게 각자의 이유로 터전을 다니고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터전을 다니는 이 생활이 꽤 즐겁습니다. 아이를 위한,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터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성원 각자의 즐거움이 존재하는 터전 생활을 하면 후회하지 않는 조합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랑

1. 어떤 신입이었고 지금은 어떤 조합원인가?(자기소개)

처음 신입일 때 농담으로 나는 공동육아의 교육이사를 하려고 태어났고,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선배 조합원들에게 어필했다. 차기 교육이사를 시켜 주길 바랐고, 그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교육에 있어, 소비자가 아닌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공동육아가 힘들고도 즐거웠다. 신입일 때 부터 의견을 내는 것에 거리낌 없이 내 할 말을 하고 여러가지 일도 자청해서 맡았다. 현재는 아이가 7세 졸업가정이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등도 겪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조합생활을 보냈다. 이 경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어려운 몇 년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회고해본다. 졸업이 있다는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양가감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한때 조합생활에 앞서서 몰입했던 선배 조합원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속도를 기다리기, 서서히 페이드아웃을 연습중이다.

2. 공동육아 조합원 생활에서 실패담이 있다면? 그 이유는?

탈퇴서를 냈다가 철회 했을 때. 조합 내부의 디테일한 상황을 공유하긴 어렵겠지만, 조합 내에서 내가 부조리하고 느꼈던 한 상황에서. 탈퇴서를 내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충격요법을 썼던 것 같다. 본래 성격이 불 같기도 한데. 사실 진심으로 탈퇴를 할 마음은 없었다. 내가 공격하고자 했던 대상은 조합원들이 아닌데, 당시 조합원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이다.

나도 정말로 탈퇴 한다면?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조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밟히고 눈물이 주룩주룩 나왔다. 일주일만에 탈퇴서를 철회했다. 그일 이후로 설득하는 말하기, 다른 사람들과 속도 맞추기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합 생활을 하며 사람들이 농담삼아 내 마음속에 탈퇴서 한 장 쯤은 모두가 품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탈퇴서를 받는 입장이 되었을때, 정말 상처를 받기도 했다. 탈퇴서는 무기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왕 고민해서 공동육아에 발을 들이셨으니 탈퇴서 쓰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보는 경험을 했으면 한다.

3. 코로나 시대에 각 현장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시대에 치이거나 시대를 극복하고 있다. 선배도 사람인지라 성격에 따라 낯을 가리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꼰대 소리를 듣곤 한다. 나도 곧 선배가 될 터인데 어떤 적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조합생활에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 같다. 1) 허니문의 단계 : 조합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이 단계에서 즐거운 경험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때 극복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특히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갈등상황시 회복이 빠를 수 있다. 2) 부족한 점이 보이는 단계 : 이 조합내에서 부족한 것. 나의 경우에는 우리 조합에 책읽기 모임이나 텃밭활동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공동육아의 장점은, 부족한게 눈에 띄면 스스로 하면 된다. 누가 해주길 바라기보다 스스로 하는 경험을 쌓아 보았으면 한다. 3) 원망의 단계 : 조합의 내부 사정을 잘 알게 되면서 내가 사기를 당한게 아닌가. 선배들이 해놓은게 뭐냐. 하는 식의 선배조합원들에 대한 원망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이사직을 수행하기 전에 어느정도의 주체의식을 장착해 놓지 않으면 이사직 수행시 어려워 하기도 하니, 미리부터 조합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청해보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보를 스스로 알아가길 바란다. 4) 선배조합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단계 : 이사직까지 수행하고 나면 선배 조합원들의 마음을 몸과 머리로 알 수가 있게 된다. 나의 코묻은 얼굴 닦으며, 불평을 아무 소리 않고 들어주며,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밥으로 술로 돌봄으로 나를 키워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조합생활을 하며 선배와 후배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주체의식을 가지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라는건 아니지만, 나의 경우에는 선배 조합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밥도 차려주고 아이들 돌봄도 도맡아 하기도 했다. 지나보고니 그 때 만큼 즐거웠던 기억도 없다.

4. 공동육아 진짜 후회하지 않는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기꺼이 뛰어들 것이다. 공동육아는 나와 내 가정.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 아이가 가족 외에 처음 접하는 사회에서 정말 두려움없이 안정적으로 잘 컸다. 두려움이 없어야 진실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개성을 내보일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그런 환경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의 유년시절이 부럽기도 하다. 아이는 그 유년시절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날 것이다. 나 또한 공동육아를 계기로 재 사회화를 할 수 있었다.

* 추가 질문 : 신입이었을때의 특이한 경험은? 마냥 공평하지 않았지만 1/n이 아니어도 좋았던 일 괜찮았던 경험.

터전에서 연장반 보육상황에 안정감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원시 내 아이만 데리고 나가는게 아

니고, 남은 아이들을 놀이터로 모두 데려나가 놀았던 한 두달의 시기가 있다. 사실 매일 데리고 나가려던건 아닌데, 서너번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나만 터전에 가면 알아서 우루루 하원 준비를 하고 놀이터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놀이터 노예가 되었다. 마지막 하원 아동까지 지키고 있고자 했고… 사실 내가 그렇게 먼저 하면 다른 아마들도 마지막 하원을 지키는 문화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당시 함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과 아마들과 저녁때까지 함께 있다가 함께 터전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즐거움이 때때로 있기도 했다. 터전의 보육상황과 아이들의 관계성, 한 아이 한 아이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도 있었다. 담임교사만큼은 아니지만 준보조교사 정도 만큼은 아이들을 잘 알고, 갈등상황을 대처하고, 돌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이 곳은 육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육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만큼 많은 이들의 신뢰가 생기는 곳이다. 아이들의 보육을 도맡아 할 수록 많은 이해와 경험이 쌓인다. 공동육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즐거움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이다.

3강 공동육아 교육과정 들여다보기(2020년)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페다회의) 연구팀

들어가는 글

‘만들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공동육아가 벌써 25년여를 넘겼다. 햇볕과 바람, 흙과 물, 일과 생활을 아이들의 배움으로 끌어들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와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었다. 경쟁과 소외로부터의 대안을 모색하며, 함께 실천해 온 교육과정의 역사가 그 시간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기도 하다.

2019년에는 누리과정이 개정되었다. 2012년과 올해, 두 번의 누리과정 공표는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당시 공동육아도 이미 제도권으로 진입해 있었으므로 누리과정의 적용은 당면한 과제였다. 그러나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비해 어린이집마다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살아 온 공동육아는 국가수준의 획일적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또 그런 적용이 공동육아의 가치와 지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페다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동육아 누리과정 연구모임’에서는 누리과정에 대응하는 공동육아교육과정을 총론 수준에서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그것을 실현하는 각론은 이후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맡겨져 다양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시 한 번 공동육아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개정 누리과정과 공동육아교육과정은 그 철학과 교육목표, 배움에 대한 관점과 교육실천 그리고 교사의 역할과 구성원 간의 협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페다회의에서는 이런 공동육아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의 같음과 다름을 살펴보고 숙고하는 것이 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일상을 창조해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어떤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살펴본 두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을 존중하며 그 흥미와 욕구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한 반면, 그런 교육의 기반에 공동육아는 ‘문화’와 ‘공동체’가, 개정누리과정은 ‘기관 안에서의 교육’이 있다는 것에서 ‘다름’ 을 보게 되었다. 개정누리과정이 펼쳐지는 공간과 배경은 소극적인 가정과의 연계, 간헐적인 지역과의 교류로 그 폭이 좁아 보였다. 반면 공동육아는 ‘공동체 문화로써의 교육과정’을 중시하며 가정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세시절기와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로의 나들이 등 폭넓은 공간과 배경을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 외에도 두 교육과정의 다양한 같음과 다름을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팀은 개정누리과정이 요구하는 국가수준의 교육 내용이 이미 공동육아 안에서 실현되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공동육아교육과정이 가정과 지역으로 더 크게 열려 있고 개인에 대한 존중과 함께 공동체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적 유아교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공동육아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을 비교한 것을 기술3)하기보다 현재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교육실천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공동육아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한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했다. 왜냐하면 개정누리과정은 이미 정부에서 발간한 여러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있고, 그 운영사례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

반면 공동육아교육과정은 여러 자료들이 흩어져 있어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각 어린이집마다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육아 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을 통합하여 각 어린이집에서 새롭게 살아낼 '만들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에 조금 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들어가는 글'에 이어진 몸 글 I '공동육아교육과정의 이해'에 2004년 공동육아 10주년 포럼의 '만들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2012년의 '살면서 배우고 놀면서 자라는 공동육아 교육과정', 2020년 공동육아 입문서 <공동육아, 더불어 사는 삶>에서 밝힌 교육과정을 비교·정리하여 실었다. 각 시기마다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바, 교육 내용의 폭이나 깊이, 시행된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 등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조금씩 다른 시각의 차이와 교육과정의 변화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이 세 개의 자료를 읽고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 2020년 오늘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함께 숙고하여 실천해 볼 만한 내용을 추려 몸 글 I에 제시하였다.

몸 글 II '공동육아교육과정의 실제'에는 연구팀이 의뢰한 여섯 개 어린이집의 교육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해설하는 글을 실었다. 이론에서 제시한 공동육아교육과정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사례를 먼저 선정하고, 이들 사례의 카테고리를 정해 여기에 맞는 다른 어린이집의 사례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물이랑, 흙이랑, 얼음이랑!>에서는 아이들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물과 흙과 얼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노는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두번째 <형아~ 같이 놀자!>에서는 흥미영역, 연령과 공간, 성별을 넘나들며 배움이 확장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해 가는 통합중심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세 번째 사례인 <단오절 씨름잔치>는 절기에 따라 다함께 즐기는 잔치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공동육아교육과정이 문화의 맥락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특징을, 네 번째 사례인 <얘들아, 모여 봐! 모둠하자!>는 아이들이 모둠을 통해 스스로 생활의 윤리를 정하고 지키는 '참여적 학습'의 특징과 그럼으로써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중심의 특징을 드러냈다.

다섯 번째 <감자꽃을 보려면 감자밭에 가야해~>는 텃밭에서 생활과 생태가 만나 발생하는 다양한 놀이와 배움, 그리고 봄부터 여름까지의 긴 호흡의 교육과정이 갖는 총체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끝으로 여섯 번째 <오늘, 긴나들이 가면 안돼?>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어린이집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즉흥적인 놀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사, 부모, 마을 어른들이 협력을 통해 '마을 문화'를 만들고 있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나가는 글'에는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담고 <부록>에 폐다회의 연구팀이 공동육아교육과정
과 개정누리과정을 비교하며 토론한 내용인 '공동육아교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의 같음과 다름'을 실었다. <부록>은 혹시 두 개의 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고 싶은 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덧붙였으나, 여기서의 비교 관점은 오직 연구팀의 관점일 뿐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자, 이제 교사들의 살아있는 기록을 공동육아교육과정 이론에 기대 살펴본 일종의 <공동육아교육과정 해설서>인 이 보고서를 통해 공동육아교육과정이 어떤 가치 지향과 실천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몸 글

I. 공동육아교육과정의 이해

1. 공동육아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1994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대안적 육아와 교육을 지향하는 공동육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거듭해 왔다. 그 긴 발자취를 따라 가다보면 크게 두 번의 교육과정 정리와 공유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2004년 공동육아 10주년 포럼이다. 이 포럼에서 1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공동육아가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일군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어떤 틀에 가두기보다 교육의 주체인 아이, 부모, 교사 그리고 자연과 지역이 어우러져 만들고변화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나 지역,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배움의 내용과 방법을만들고 실천하는 매우 폭넓은 자유를 각 어린이집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또 하나의 틀로 고착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변용을 허용하는 '만들면서 만들어 가는'에 주목하는 교육과정이었다.

이후 2005년 산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평가인증제에 참여하고, 2012년 국가 단위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실시되면서, 그 시범사업 시기인 2011년에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공동육아교육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재정리하는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 그 동안의 공동육아교육과정이 국가가 제시하는 5개 영역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좀 더 아동 중심적이고 발달과 교육영역에서 통합적인 교육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국가수준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육아와 교육에서의 대안적인 실천이 구성원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되고 있음이 증명 된 것이다. 또한 이 때 공동육아의 교육내용을 '생활문화와 놀이문화'로 나누면서 교육과정을 '문화'로 읽어내는 시각이 강조되었으며, '생활문화'는 교사들이 계획과 안내를 주로 하는 활동이, '놀이문화'는 아이들이 주도하는 자유놀이가 그 하위 범주로 정리되었다.

그렇게 크게 두 번의 정리과정을 거쳐 최근의 공동육아교육과정은 '아이들이 가정, 이웃, 지역사회라는 중층적 생활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생활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받아들이고 몸에 익히는 동시에 놀이를 통해 늘 새롭게 구성해 가는 역동적 과정 그 자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공동육아는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육아는 교육·문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한 교육적 환경으로 보고 있으며,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아이, 부모 및 양육자, 교사 등)을 교육의 주체로 본다. 삶의 모든 순간은 배움으로 가득하며, 그 배움은 공동체에 속한 모

든 사람들 간에 상호적으로 일어나고, 공동체가 속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공동육아는 학교 모델이 아니라 교육문화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교육의 주체로서의 아이, 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지역 전체의 가치와 문화가 아이들의 삶과 배움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공동육아는 배움을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런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안에서 교사에 의해 계획되고 실천·평가되는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도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총체적인 경험은 교육주체 모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교사들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이 평가인증제, 국가수준의 누리과정 적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가시화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육아교육과정은 '삶의 경험을 주고받으며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넓은 의미의 공동육아교육과정이라고 정리하며, '교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 있는 문화를 아이들이 그들의 생활과 놀이를 통해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계획, 실행, 평가하는 일'을 좁은 의미의 공동육아교육과정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과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이 아이와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자연을 포함한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헤어지며, 계획하고 실천하는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본다.

2.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공동육아가 보육공동체, 학습공동체로서 실현하고자하는 교육적 가치는 참여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생태적 가치, 배움의 가치, 차이와 연대의 가치 등등이다.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육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생활중심의 비형식적 교육과정

공동육아의 구성원들은 일상생활의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육은 실제 '삶에 참여하는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John Dewey, 1897)8)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이는 공동육아의 교육이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실천적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이다. 더불어 이러한 생활세계의 일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육아 교육과정은 '지식중심의 학교형 형식적 교육과정'과는 다른 '생활중심의 비형식적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경험이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연계성과 계속성을 갖게 이끌어 줘야한다. 그 과정에서 경험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관심이 발달해 가며 지력(知力)이 생기고, 토론과 발견이 일어나며, 끊임없이 자신을수정해나가는 학습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생활형 비형식적 특성을 갖는 공동육아교육과정은 인지중심의 체계적 학습이 아닌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특히 교사의 명료한 계획과 의도보다는 아이의 자발적 흥미를 존중하는 '자유놀이'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가능하면 놀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실내외의 경계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놀잇감의 종류와 가짓수를 교사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흥미와 자발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탐색과 시도가 가능하도록 이끈다. 이와 같이 공동육아는 자유를 보장하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풍부한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실천한다.

3) 아동중심의 교육과정

공동육아의 아동중심 철학은 아이의 개체성, 주체성과 더불어 육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동육아는 아동의 자발적 능동성에 대한 신뢰가 높다. 이부미(2020)는 우리가 키우고자하는 공동육아의 어린이 상(像)을 '독립적이며 관계적인' 어린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을 갖는' 어린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공동육아 초기부터 이기범(1994)은 "아이들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육아의 목표는 아이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욕구에 맞추어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 이해에 더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계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동육아는 아동중심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터전 구성원들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아동이 교육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아이의 개성과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 관심, 능력, 필요성을 아이가 스스로 표현하고, 이를 교사가 존중하여 반영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아이 개인과 집단에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인가에 관한 결정과 조직은 교사(교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4) 생태중심의 교육과정

공동육아의 교육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동 중의 하나가 자연친화적이며 생태적인 교육 이념과 실천의 결합이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생태적으로 사고하는 공동육아는 처음 출발부터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나가는 '나들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나들이로부터 시작되는 생태적 교육실천은 아이들은 물론 부모와 교사들의 생활에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육아의 생태교육은 생태적 능력 및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먹을거리와 관련된 텃밭 농사, 요리 및 음식문화, 세시절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개별적 자아'를 넘어선 '생태적 자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공동육아 구성원들은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생태적 삶을 지향하며, 부모, 교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태적 생활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

5) 관계중심의 교육과정

앞서 언급한 '독립적이며 관계적인' 어린이 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육아에서는 관계성을 매우 주요한 교육과정의 토대로 본다.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독립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은 관계적 맥락에서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육아 안에서는 아이와 아이의 관계, 아이와 교사의 관계, 아이와 부모의 관계, 교사들의 관계, 부모들의 관계, 교사와 부모들의 관계,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다양한 어른들과 관계하고 친구들과 오랜 세월을 깊이 있게 관계함을 경험한다. 이러한 생생하고 다양한 관계가 어린이집의 생활과 배움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은 차이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계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통합중심의 교육과정

공동육아는 전체적이고 관계적인 우리의 삶을 재인식하고, 실생활을 통해 분리된 개념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공동육아에서 통합은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보다는 다름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더 기본적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통합의 가치를 둔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참여를 북돋는 아동중심의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즉, 기존 학습에서 분리되었던 발달영역과 활동영역을 통합해서 교육하며, 학습을 시간과 공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시간과 공간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교육공간과 시간의 부여, 연령 통합 활동, 양성성의 교육, 장애아 통합교육 등 다양한 배경과 능력의 통합을 실천하고 있는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은 통합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 지역사회중심의 교육과정

공동육아는 내 아이만을 잘 키우자는 것이 아닌 “함께 크는 우리 아이”를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한 시공간으로서의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중요하게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공동육아에서의 지역사회의 개념은 시간적으로는 한국 전통사회의 마을 공동체의 이념과 연결된다. 마을 공동체와 연결된 실체 중의 하나가 부모들이 실천하고 있는 ‘마실’과 ‘품앗이 육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부모,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행위이자 친밀한 정서의 교류인 품앗이 육아가 이루어지는 문화의 장소가 마실이다. 그러므로 공동육아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있어 지역은 단순히 교육과정의 대상이 아닌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로서의 교육 공간이며 마을 사람들과 마을 문화를 포함하여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특성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씨실과 날실과 같은 상호 연관성의 그물망 구조를 갖는다.

---------- 중략 ----------

**[2020 공동육아교육과정 들여다보기]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홈페이지 자료실에 실려있습니다.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 홈페이지 자료실 교육/운영 자료 링크 참조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411&wr_id=111&sca=%EA%B5%90%EC%9C%A1

참고자료

만들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이 부 미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연구원 원장,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들어가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구성원들(교사, 부모, 연구자)이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그 방식 안에서 어린이들을 교육하자는 큰 틀에 동의를 갖고 시작된 교육공동체이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내용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데에 초점이 모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란 크게 보면 문화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공동육아의 교육과정 구성의 배경에는 문화라고 하는 큰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나는 이 맥락을 두 가지 차원으로 파악하는데, 하나는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지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 즉 가치론적 차원의 문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삶의 일상성과 구체성 안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 안에서 구성되고 교류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 차원의 문화가 상정될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문화를 통해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치로서의 문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치롭게 여기는가는 구성원들이 그리는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 공동육아의 개념, 공동체 개념과 운동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다. 이들은 이점에 대해 1994년 신촌의 '우리 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직전에 펴낸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라는 책에 '공동육아의 이념, 철학, 방법론'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조형(1994)은 공동육아의 기본 원리로서 어린이의 개념에 대해 아동의 미성숙보다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권리 개념에서 한 걸음 더 진보적인 특성을 띤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아동의 권리 개념이 개인 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두는데 반해, 공동육아 개념은 아동이 사회 속의 개체임을 중시하고 그들이 양육되는 사회 환경과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의 성격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개체성, 주체성과 더불어 육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공동육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의미와 이념적 요소로는 구체적이고 참여적인 협동을 통한 민주주의 시민개념과 미

래지향성, 공동체 사회 이념을 들었다.

한편 이기범(1994)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그는 공동육아의 어린이에 대한 인식론에 대해 아이들을 백지상태로 보는 것에서 세계를 백지상태(world as tabula rasa)로 보는 것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틀에서 육아의 목표는 아이들이 그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욕구에 맞추어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들이 그 이해에 터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계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기존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하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삶의 터전은 주입과 숙련 형태의 육아 효율, 능률,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어서는 안 된다. 그 터전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이다. 그 안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구성된 일상세계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공동육아의 터전은 열린 관계를 지향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이들이 기존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기존 세계에 '능동적 적응'을 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수정,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총체적 삶의 장이어야 한다. 이런 삶의 터전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모와 보육 종사자들은 함께 토의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동육아 이론가들이 제시한 어린이의 개념은 역사성과 사회성의 기반 위에서 어린이의 개체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진보적인 개념이다. 어린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총체적 삶의 장으로서 일상생활 및 생활세계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치론으로서의 문화는 비단 공동육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가치는 소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학교나 교육문제의 담론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최근 지역연계에 터한 참여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자들은 학교를 문화의 장소(Place of Culture)라고 표현한다. 이들에게 문화는 가치를 의미함을 Rinaldi(2001)의 학교와 가치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포함하여 학교란 교육적 장소이고 교육의 장소이다. 즉 가치와 지식이 전달되는 곳이고 가치와 지식이 구성되는 곳이다. 학교는 문화의 장소이다. – 즉, 사회적 정치적 영향들과 깊고 진정한 상호성의 관계라는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치맥락들이 발달하는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장소인 것이다.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과 각 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외재적 가시적 의식적 그리고 공유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다양하면서도 핵심적인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차이성의 가치 : 성, 인종, 종교, 문화의 차이, 참여의 가치 또한 참여라는 개념에 스며든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그리고 학습의 가치, 놀이, 재미, 정서 느낌의 가치 등이다.

그들은 늘 학교란 단순히 문화가 전승되는 제한된 곳인가 아니면 문화를 구성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실천되는 장소인가를 질문한다.

이기범(1994) 역시 교육의 장소로서 문화공동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공동육아는 혈연이나 지역 혹은 과거의 문화적 전통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아니다. 공동육아는 삶과 육아의 가치와 의미의 문화공동체이다…….즉 세상에 대해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라기에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가치와 의미를 교류하고 조정하는 공동체인 것이다…….열린 공동체로성의 공동육아의 가치와 의미는 어른들이 그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터전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프로그램으로도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느냐보다는 그러한 가치와 의미가 공동육아 공동체의 정념(ethos)이요 삶의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공동육아의 이론가들이 가치로서의 문화에 대해 공동육아 출발부터 얼마나 중요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들이 현장의 복잡한 현실에 치여 방향감각을 잃고 힘들어 할 때, 집단적으로 되새기고 공유하는 역사책의 첫 페이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안에서 가치로서의 문화와 교육은 서로 상생의 조건이다.

3. 교육과정으로서의 문화

앞서 언급한 내용이 삶의 방식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문화였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육아가 어린이집이라는 장소에서 교육적 실천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급이 있었다.

정병호(1994)는 어떠한 문화적 틀 속에서 어린이들을 성장하게 하고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공동육아 운동론으로 풀려고 하였다. 그에게 운동이란 넓은 의미의 교육적 행위를 뜻한다.

아이들이 한 사회의 언어를 배울 때 무의식적으로 문법을 익히듯이 이러한 문화적 틀 속에서 아이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화적 사회적 규칙성 즉 문화적 문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육아의 터전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그가 제시하는 문화적 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육아운동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사람과 자연과 함께 사는데 익숙한 어린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그들이 체험하고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인간관계,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 기성세대들이 배워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을 찾아 바로잡아 나가고자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현재의 무한경쟁 체제와 그에 따른 불평등 구조, 즉 소득, 학력, 성, 지역, 장애 정도에 따른 모든 차별 요소를 육아의 영역에서부터 극복해 나가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국가 단위의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보육 방식의 보급보다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에 기반을 둔 육아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동육아 운동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

기위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흔히들 어른들의 거대 정치구조 속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주제들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공동육아 운동의 핵심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공동육아 운동은 육아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변화하고,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꿔 나가는 운동이다…….

공동육아 운동은 모두가 그대로 받아다 쓸 수 있는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시보다 몇 가지 기본적 원칙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 각자가 스스로 보고 느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으로, 생활의 현장에서 그 삶의 방식의 총체적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모델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한 모델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라날수록 공동육아 운동은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토양 위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병호의 언급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적 주제와 방법론, 표준적 모델이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낸 살아있는 모델들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 원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그림을 일컬어 하나의 문화적 틀이라고 하였다. 공동육아 문화적 틀로서의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들은 어린이집이 속속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이론적 실천가들의 손에서 현장 실천가(교사, 부모)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틀 안에서 어른과 아이 사이의 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별명 부르기와 반말, 아버지 참여 및 양성평등 교육, 장애아 통합교육, 의사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위한 다양한 모둠과 회의 문화 개발, 자연으로의 나들이, 놀이를 보장하는 생활, 전통문화의 재구성, 건강한 먹을거리 등의 총체적인 삶과 교육이 부모들의 참여와 교사들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는 이러한 공동육아의 교육 실천들을 크게 생태교육, 생활문화교육, 관계교육, 통합교육이라는 네 가지 개념 축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의 교육 실천들은 이 네 가지 개념 축 사이에서 교차 구성된다.

1) 생태교육(생태적 능력)

공동육아의 생태교육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은 나들이, 먹을거리, 텃밭 가꾸기를 통한 농사짓기이다. 생활문화, 관계, 통합교육과도 관련되는 이 교육활동들은 공동육아 10년의 역사 안에서 나름의 진화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1] 그 진화과정의 계기가 바로 생태적 능력의 획득이다. 나들이의 경우 초기의 자연친화적인 나들이 수준에서 생태 나들이로 변화하게 되는 데는 외부 생태전문가들의 교사교육과 교사들의 장기적인(1년) 자기 교육 프로그램이 축적 되면서 자연 안의 유기체로서 살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태 능력이 획득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연과의 관계가 보다 밀착되고 이런 자연과의 밀착은 자연의 역사와 더불어 그 자연 아래 펼쳐진 지역사회와 자연과의 관계 및 문화에까지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된다. 교사, 부모,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농사

1) 자세한 내용은 이말순, 김기나 발표 자료를 참조할 것.

짓는다는 행위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의 순환과 질서 그리고 인간의 먹이사슬(먹을거리) 관계에 대한 깨달음 역시 생태적 능력과 감수성을 기르고 확장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먹을거리 역시, 처음엔 소박하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먹을거리 문제는 단순히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먹을거리와 세시절기와의 관계를 연결하게 되면서 지역 음식 문화, 음식과 문화와의 관계, 부엌의 의미, 음식을 통한 교육과 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체득한다.

이처럼 공동육아의 생태교육은 처음엔 일반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의도성을 갖고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실천이 당위적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결과(특히 교사들의 노력)자연에 생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 능력이 얻어짐에 따라 생태교육은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2) 생활문화교육(기본적인 문화 또는 민속적 능력)

공동육아의 생활문화 교육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자발적인 놀이, 전통문화를 재구성하려는 전래놀이, 세시절기 교육, 옛이야기 들려주기, 감수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활동, 기본생활 습관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역시 차이는 있지만 10년의 역사 안에서 발달해 오고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 권리문화와 전통문화의 재구성이다. 어린이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행복권이라는 세계 보편적 권리의 차원에서 어린이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동육아 교사들에게 전통문화 재구성 문제는 독자적이면서도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얼개를 구성하는데 특별하고도 결정적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마을에서 살아나는 세시풍속'을 썼고 최초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지낸 박현숙에 의하면 전통문화를 찾고 계승하여 오늘날에 맞게 재창조해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처음부터 교사들의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초반 5-6년은 세시에 맞는 어린이집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교사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실천한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2000년이 넘어가면서 세시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연구와 의미 찾기 교육 모임이 이루어지고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문재현 소장과 1년 동안 세시풍속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해 '세시와 한해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의 큰 틀을 짜게 되었다고 한다. 즉 나들이, 놀이, 먹을거리, 이야기 등으로 각각의 활동으로만 진행되던 교육활동들이 세시와 한해의 흐름이라는 틀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 처럼, 세시와 한해 흐름은 공동육아의 병렬적인 교육활동들을 연결하고 통하게 하는 하나의 조직 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공동육아 교사들의 개방된 태도와 진지한 현장 적용능력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잠재적으로 남아있을 지도 모르는 민중들의 민속적인 삶의 방식과 지혜가 지극히 생태적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문재현의 교육은 단순한 하나의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해 온

과정적 결과이다. 그는 국가수준의 독점적 교육과정에 비판을 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마을수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수준, 개인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의 연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비형식적 교육의 방법으로 민속적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런 민속적 방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능력이 이야기, 놀이, 전래동요. 수수께끼, 속담, 세시풍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요소로써 실천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2] 나는 여기서 민속적인 방법에 터한 기본적인 문화능력이 전통문화교육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삶과 교육이 밀착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교육적 능력 및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3] 바로 이 점 때문에 '세시와 한해 흐름'이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의 틀을 갖추는데 계기를 주었다고 본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능력(민속적인 능력)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교사와 어린이가 주고받으며 상호 영향을 미칠 때,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계교육 (소통의 능력)

공동육아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를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생각한다. 자연과 인간관계는 생태교육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통의 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해별명과 반말 문화, 모둠활동, 부모 교사들의 회의문화, 마실 문화, 어린이의 하루 생활에 대한 부모교사의 기록문화인 날적이 등이 어린이집 생활과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4] 어린이집 안에서 어린이들은 다양한 어른들(친구들의 부모들 까지 포함)과 관계하고 친구들과 오랜 세월 깊이 있게 관계함을 경험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의 역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관계맺음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고립된 도시사회에서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하는 관계는 더욱 어렵다. 공동육아는 이 어려움을 세시와 관련된 마을축제나 지역사회 자연의 생태적 관심으로 풀어가기 시작했다.

4) 통합교육 (차이와 연대의 능력)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통합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아마 차이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공동육아에서의 통합은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보다는

---

2) 문재현의 논의는 http://www.maul.or.kr 의 <마을공동체 교육운동과 마을수준교육과정>, <마을수준 교육과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공동육아 학부모> <민중을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참조할 것.
또한 보육과 전통문화와의 결합은 일본 보육 역사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가 부재한 행사 중심의 문제로 이러한 문화행사 자체를 없애버린 상실의 시대를 거쳐 최근 다시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를 영유아에게 전승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Chizu Teshi, 2004).

3) 이 지점이 바로 삶과 떨어져 있는 교육과정이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 모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5, 6차 유아교육과정 및 실제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교육에 대해 백혜리(2004)는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4)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별명과 반말 문화, 날적이, 부모들의 마실 문화에 대한 교육적 논의는 이부미(1999)의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또는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이부미, 2000)을 참조할 것.

다름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더 기본적이다. 그 다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교육 공간과 시간의 부여, 연령 통합 활동, 양성성의 교육, 장애아 통합교육, 계층 및 문화통합의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합교육은 특히 더 관계교육과 밀착되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기술한 생태교육, 생활문화교육, 관계교육, 통합교육의 우산 아래에서 공동육아의 다양한 교육활동들은 교육의 장소에서 서로 가로지르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가로지르기의 직조가 가능한 씨실과 날실의 틀은 문화라는 뼈대이다. 이 뼈대는 생태학적 능력, 민속학적인 기본적인 문화능력, 소통의 능력, 차이와 연대 능력으로 성장하는 탄력적인(말랑말랑한) 구조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로서의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인 것이다. 문화는 공동육아의 삶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데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육아의 교육시스템은 가치론적인 차원과 교육과정 차원의 문화가 상호작용 하는 역동적인 체제라고 볼 수가 있다.

4. 일반적 교육과정 논의에서 본 문화로서의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위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크게 교육이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는 전통적 이론과 인간의 실존적 해방이나 정치적 해방을 교육과정의 주제로 삼는 진보적인 재 개념화 논의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의 실천적 역사는 후자에 해당된다.

실존적 해방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탐색한 Pinar(1975. 허숙, 1993;재인용)는 모든 교육이론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교육의 본래의 모습, 즉 일정한 틀로 이론화되거나 개념화되기 이전의 모습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교육과정의 이론이란 결국 우리의 실존적 경험을 정교화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육과정 탐구에서 흔히 교육과정을 정의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라던가,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서의 의도된 학습 결과”라고 부르는 데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Pinar는 Curriculum과 Currere를 대조개념으로 병치시켜 ‘currere’는 외부로부터 미리 마련되어 교육 속에서 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교육 활동 속에서 아동들 각자의 개인이 갖는 경험의 본질로 규정한다. ‘curriculum’이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자료라면, 내가 그 자료를 접하고 읽고 생각하고 느끼며 배우는 나의 모든 생생한 경험들이 바로 ‘currere’라는 것이다. 따라서 ‘currere’로서의 교육과정 탐구는 목표를 설정하고 코오스를 설계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활동들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 자체의 독특한 탐구방식을 동원하여 교육경험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스스로 교육과정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활동인 것이다. 스스로 교육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여 그 실존적 의미를 찾는 작업, 이것을 Pinar는 ‘currere의 방법론’이라 부른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는 최근 유아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발달이론에 치중해 있는 유아교육과정(Gipson, 1991, 이기숙, 2001; 재인용)은 교육과정의 문화적, 지식적 측면이 무시되어왔다는 평가와 함께(Spodek, 1993) 정치철학적 이슈가 배제되었다는(Kessler, 1991, 이기숙, 2001; 재인용)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양

성을 무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교육과정의 논의에서 볼 때,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은 가치론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점, 교육과정에 정치철학적 이슈를 포함시키는 점, 문화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재개념화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교육과정 탐색의 방법론이 외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가정들을 넘어서서 자기 나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실존적 경험을 탐색하고 정교화 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재 개념화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실천 사례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개념에서 벗어나 주관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 부모, 어린이들의 목소리와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많은 어린이와 부모들을 맞고 떠나보냄이 숙명처럼 존재하는 교사들의 좋은 목소리는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각별하게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구절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유아교사로 돌아간다. 우리는 교사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교수법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한 개인을 본다. 우리는 불명료함(ambiguity)으로 살아가며 일하는 –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질문에 몰입하는– 한 개인을 본다. 우리는 가능성의 만화경을 보는데 왜냐하면 좋은 유아교사들이 무수히 많이 있으며 각자가 실제상황, 즉 삶의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배려하며, 사람들이 더욱 배려하는 세계를 꿈꾸며 그리고 더욱 배려하는 세상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Ayers, 1989, Jungck, S. & Marshall, J. D, 1992; 재인용).

오늘날의 사회는 다중의 실재가 공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Rinaldi(2002)는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로 지배하는 역사적인 시대, 변형, 적응,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대를 일컬어 ‘디자인의 시기’라고 하였다. 교육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 사토마나부(2001)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디자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딸이 어릴 적에 되풀이하며 놀던 적목놀이를 떠올린다. 디자인은 만들면서 만들어진다. 적목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는 생겨나고, 그 이야기가 또 새로운 적목의 형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모양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교육개혁의 디자인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유동적인 과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추진하는 개혁은 때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래를 여는 확실한 디자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견해를 빌리면 오늘날의 교사들은 창조적인 디자이너가 되어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에서의 교육과정이란 구성원들이 합의한 삶의 가치를 교육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협의하고 절충하는 실험이 가능한 문화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틀은 늘 변형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자아들이 참여의 목소리를 내어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이다. 교육의 진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교육적, 평화적, 문화적 진보를 삶의 속도로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재현(2000). 마을공동체 교육운동과 마을수준교육과정. http://www.maul.or.kr
백혜리(2003). 한국의 보육시설, 유치원에서의 교육과 문화 연계의 실제. 어린이와 문화. 삼성복지재단 제11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사토마나부 저, 손우정 역(2001).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 공감.
이기범(1994). 공동육아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또 하나의 문화.
이기숙(2001).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이부미(1999). '공동육아'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또 하나의 문화.
정병호(1994). 공동육아 운동론.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또 하나의 문화.
조 형(1994). 공동육아란 무엇인가.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또 하나의 문화.
허 숙(1997).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실존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 교육현상의 재개념화 -현상학, 해석학, 탈 현대주의적 이해- 허숙. 유혜령 편. 교육과학사.
Jungck, S. & Marshall, J. D, (1992). 하나의 커다란 논쟁에 대한 교육과정적 관점들. Reconceptualizing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Beginning the Dialogue 신옥순, 염지숙 역(2000),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그 대화의 시작. 창지사.
Rinaldi. C(1998). The Space of Childhood. in G. Ceppi. & M. Zini.(Ed.), children, spaces, relations metaproject for an environment for young children. Reggio Children. 박병희, 박선희 역(2002). 유아, 공간, 관계 유아를 위한 포괄적 교육환경 프로젝트. 다음세대.
Rinaldi. C(2001). Infant-toddler centers and Preschool as Place of Culture. Making learning visible children as individual and group learners. Project Zero & Reggio Children.
Spodek. B., & Brown. P. C. (1993). Curriculum Alternativ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 History Perspective. In B. Spodek.(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ew York : Macmillan.
Teshi. C.(2003) 일본의 보육과 문화와의 결합. 어린이와 문화. 삼성복지재단 제11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참고자료 기타 사무국 관련 안내

(1) 법인 계좌번호 안내

구분	계좌번호	은행명
법인회비 및 교육비 입금 계좌	032901-04-212061 820-25-0011-286	국민은행
교육운동기금(어린이운동기금) 후원계좌	031-01-0421-564	국민은행
교사대회 참가비 입금계좌	031-25-0007-376	국민은행
공동육아 한마당 참가비 입금계좌	363037-04-000327	국민은행

(2) 법인회비(부모, 교사, 평생회원)

1) 회비납부 안내

① 터전별 일괄 계좌이체

- 조합에서 단체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매달 10일자 현원 기준(가구수)으로 송금해주세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숫자만큼 계간 <공동육아> 회보를 보내드리며, 연말에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회비 입금 시 입금자명을 “공공교회비” 혹은 “법인회비” 등으로 하지 마시고 “터전명+부모” 혹은 “터전명+교사” 등으로 터전의 이름을 명확히 해주세요.
- 교육운동기금(어린이운동기금)을 납부하는 터전의 경우, 법인회비와 함께 입금하지 마시고 교육운동기금 계좌로 따로 입금 해주세요.
- 부모회비와 교사회비는 따로 관리되므로, 입금하실 때 되도록 나눠서 입금합니다. 수수료 문제로 불가피하게 같이 납부하셔야 하는 터전은 미리 연락주세요.
- 어린이집과 방과후에 모두 조합원인 회원은 회비를 방과후에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 교사회원이면서 부모회원인 조합원은 교사회비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② 개인별 자동이체(CMS)

- 자동이체로 개별납부를 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신입조합원이나 탈퇴조합원이 생기면 법인회원 가입/탈퇴 신청에 대해 꼭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가입 링크 :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541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납부하신 회비는 전액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매년 1월 초에 일괄 신청서(12월 공지)를 보내주신 터전은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자료제출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메일, 팩

스 등으로 전달해드립니다.

- 터전별 일괄 계좌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터전은 반드시 재정 담당자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자동이체를 하는 회원의 경우, 가입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셨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영수증 발급

- 법인에서 주최하는 교육 참가비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영수증 신청 링크 : https://goo.gl/forms/LkR8OvMcHRpnoEjv1

4) 기부 안내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활동을 후원하시거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공동체학교 네트워크를 후원하는 공동육아교육운동기금(구 저소득기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http://www.naver.com) 회원 가입 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해피로그(http://happylog.naver.com/gongdong)에서 기부하시거나,
  홈페이지 후원 게시판(메뉴-가입&후원-후원하기: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541을 통해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해피로그를 이용하실 경우, 네이버에 가입하신 회원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름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분의 아이디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1월~12월에 후원하신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도서 구입 안내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출판사에서 발간한 도서 및 관련 도서를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 신청 링크 : https://forms.gle/XzLQGiEXyE2ehbuV8
- 판매 도서 내역(추후 품절 도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명	저자	판매금액
공동육아, 더불어 삶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5,300원
우리는 이렇게 공동육아 한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무료
성미어린이집 모두모두 하하하	성미어린이집 10년사 발간위원회	15,000원
마음을 품은 뿌리와새싹	공동육아뿌리와새싹어린이집	15,000원
공동육아 돌봄공동체 생활백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6,000원

도서명	저자	판매금액
시간을 찍는 아이들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방과후학교	15,000원
공동육아방과후 운영지침서	공동육아방과후 교사회	10,000원
신나게 만들고, 맛있게 먹자	2009년 공동육아 영양교사모임	8,000원
얘들아, 우리 이야기 하자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0,000원
우리 이렇게 놀아요	편해문, 놀이와 노래 연구모임 '놀래?!'	12,000원
공동육아 2. 코뿔소~ 나들이 가자	공동육아연구원	9,800원
공동육아 3.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이부미	9,000원
공동육아 4.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이야기	류경희	10,000원
루소의 에밀 읽기	이기범	6,500원

참고자료 **어린이 행복선언**

<어린이 행복선언>

1. 마음껏 신나게 놀고 나면 행복해요.

놀 곳과 놀 시간을 주세요.

2. 포근하게 안아주면 행복해요.

많이많이 안아 주세요.

3. 하늘을 보고 꽃을 보면 행복해요.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해주세요.

4.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요.

좋은 먹을거리를 주세요.

5. 책을 읽어줄 때 행복해요.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세요.

6. 어른들이 기다려 줄 때 행복해요.

잘 못하고 느려도 기다려 주세요.

7. 제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8. 제 힘으로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해요.

저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9. 어른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모두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10. 다른 아이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고자료 **보육권리선언**

<보육권리선언>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모두들 그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겐 미래도 희망도 없다. 골목마다 넘치던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어느 새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겨워 부모 되기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고 여성 역시 가정에만 머물기를 거부하고 사회참여를 의무와 권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여성에게 사회참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보육도 떠맡기고 모른 체 했다.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데를 찾아 여기저기 뒤지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잘 키워 주기를 바라기는커녕 그냥 안전하게 맡아만 줄 곳조차도 찾기 어렵다. 혹 있다 해도 어느 곳은 너무 비싸고 어느 곳은 너무 멀고 어느 곳은 너무 열악하다. 결국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부모도 생기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부모들은 불안을 안은 채 아이들을 미흡한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교사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이다. 열악한 시설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아가며 장시간 많은 아이들을 돌보노라면 몸도 마음도 지레 지쳐 버리기 일쑤이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 되려면 부모와 교사와 국가가 한 마음이 되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키워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여건에서 이러한 보육을 바란다는 건 어림없는 욕심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불가능한 과제이기만 할까? 지금 당장 우리 사회와 국가가 힘을 쏟는다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을 위하여 우리, 어린이와 교사와 부모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보육권리 선언(어린이)

날마다 햇빛과 바람, 물, 흙 속에서 놀 수 있게 해 주세요.

매일 나를 안아주고, 나와 눈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친구(선생님)들을 충분히 주세요.

따뜻한 간식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세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 조금 다른 얼굴, 다른 말, 다른 나이의 친구들과도 함께 놀 수 있게 해 주세요.

꽉 짜인 시간표로 움직일 때마다 줄 세우지 말아 주세요.

여자와 남자를 옷과 놀이와 말로 구별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똑같은 옷과 가방과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글자와 숫자와 외국말을 너무 일찍 익히게 하지 말아 주세요.

화난 얼굴, 노여운 목소리, 무서운 매로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아 주세요.

학교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 보육권리 선언(교사)

안정된 보육시설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한 교사가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줄여 주세요.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세요.
교사들의 적절한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부모들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보육권리 선언(부모)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게 좋은 보육시설을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지원하는 보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주세요.
바람직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와 사회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사들과 늘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아보육, 야간보육, 장애통합보육 같은 다양한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2004년 10월 9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발행처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발행인 : 전주리
발행일 : 2022년 3월 24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10길 5
전 화 : 02-323-0520
팩 스 : 02-323-1695
홈페이지 : https://www.gongdong.or.kr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